

<b>보도</b>	<b>2026.1.28.(수) 석간</b>	<b>배포</b>	<b>2026.1.27.(화)</b>		
<b>담당부서</b>	은행리스크감독국 건전경영팀	<b>책임자</b>	<b>팀 장</b>	<b>김웅겸</b>	<b>(02-3145-8330)</b>
		<b>담당자</b>	<b>선 임</b>	<b>최영식</b>	<b>(02-3145-8334)</b>

## '25.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[잠정]

### 1. 개요

□ '25.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)은 **0.60%**로 전월말(0.58%) 대비 **0.02%p 상승** [전년 동월말(0.52%) 대비 **0.08%p 상승**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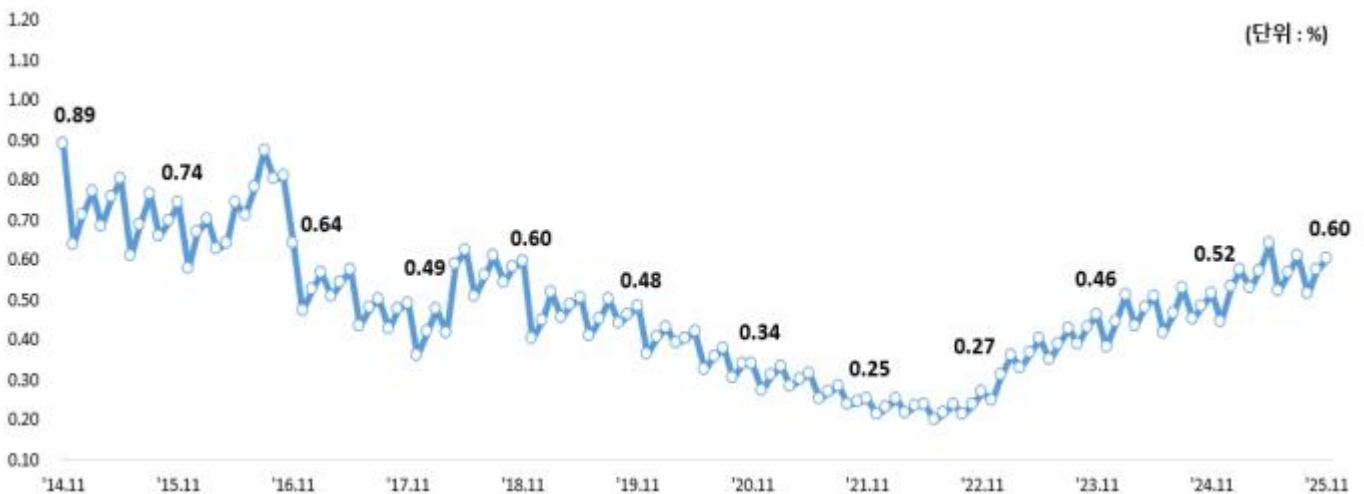
○ '25.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\*(2.6조원)은 전월(2.9조원) 대비 **0.3조원 감소** 하였으며, 연체채권 정리규모(1.9조원)는 전월(1.3조원) 대비 **0.6조원 증가**

	('23.11월)	('24.11월)	('25.6월)	('25.7월)	('25.8월)	('25.9월)	('25.10월)	('25.11월)
* 신규 연체채권 규모(조원):	2.7	2.8	2.8	2.8	2.9	2.5	2.9	2.6
연체채권 정리규모(조원):	2.0	2.0	5.7	1.6	1.8	4.8	1.3	1.9
연체채권 증감규모(조원):	+0.8	+0.8	△2.9	+1.2	+1.1	△2.3	+1.6	+0.7

○ '25.11월중 신규연체율('25.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/'25.10월말 대출잔액)은 **0.11%**로 전월(0.12%) 대비 **0.01%p 하락** [전년 동월(0.12%) 대비 **0.01%p 하락**]

\* 신규연체율(%):('24.11) 0.12 → ('25.7) 0.11 → ('25.8) 0.12 → ('25.9) 0.10 → ('25.10) 0.12 → ('25.11) 0.11

###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('14.11월~'25.11월)



※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,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

## 2. 부문별 현황

- (기업대출) '25.11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(0.73%)은 전월말(0.69%) 대비 0.04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60%) 대비 0.13%p 상승]
  - 대기기업대출 연체율(0.16%)은 전월말(0.14%) 대비 0.02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03%) 대비 0.13%p 상승]
  - 중소기업대출 연체율(0.89%)은 전월말(0.84%) 대비 0.05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75%) 대비 0.14%p 상승]
    - 중소기업 연체율(0.98%)은 전월말(0.93%) 대비 0.05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78%) 대비 0.20%p 상승]
    -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(0.76%)은 전월말(0.72%) 대비 0.04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71%) 대비 0.05%p 상승]
- (가계대출) 가계대출 연체율(0.44%)은 전월말(0.42%) 대비 0.02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41%) 대비 0.03%p 상승]
  - 주택담보대출 연체율(0.30%)은 전월말(0.29%) 대비 0.01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27%) 대비 0.03%p 상승]
  -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(신용대출 등)의 연체율(0.90%)은 전월말(0.85%) 대비 0.05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82%) 대비 0.08%p 상승]

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구 분	연체율 시계열 ('13.12월~'25.10월)	'23.11말	'24.11말 (A)	'25.8말	'25.9말	'25.10말 (B)	'25.11말 (C)	증감	
								전년동월 (C-A)	전월 (C-B)
기업대출		0.52	0.60	0.73	0.61	0.69	<b>0.73</b>	+0.13	+0.04
대기업		0.18	0.03	0.15	0.12	0.14	<b>0.16</b>	+0.13	+0.02
중소기업		0.61	0.75	0.89	0.75	0.84	<b>0.89</b>	+0.14	+0.05
중소법인		0.64	0.78	0.97	0.81	0.93	<b>0.98</b>	+0.20	+0.05
개인사업자		0.56	0.71	0.78	0.65	0.72	<b>0.76</b>	+0.05	+0.04
가계대출		0.39	0.41	0.45	0.39	0.42	<b>0.44</b>	+0.03	+0.02
주택담보대출		0.25	0.27	0.30	0.27	0.29	<b>0.30</b>	+0.03	+0.01
가계신용대출등		0.76	0.82	0.92	0.75	0.85	<b>0.90</b>	+0.08	+0.05
원화대출계		0.46	0.52	0.61	0.51	0.58	<b>0.60</b>	+0.08	+0.02

\*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

### 3.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

- '25.11월말 연체율(0.60%)은 신규발생 연체채권 감소( $\Delta$ 0.3조원) 및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(+0.6조원)에도 불구하고 전월(0.58%) 대비 소폭 상승(+0.02%p)

* 구분[% , %p]	'24.11	'24.12	'25.1	'25.2	'25.3	'25.4	'25.5	'25.6	'25.7	'25.8	'25.9	'25.10	'25.11
연체율	<b>0.52</b>	0.44	0.53	<b>0.58</b>	0.53	0.57	<b>0.64</b>	0.52	0.57	<b>0.61</b>	0.51	0.58	<b>0.60</b>
전월 변동	<b>+0.04</b>	$\Delta$ 0.08	+0.09	<b>+0.05</b>	$\Delta$ 0.05	+0.04	<b>+0.07</b>	$\Delta$ 0.12	+0.05	<b>+0.04</b>	$\Delta$ 0.10	+0.07	<b>+0.02</b>

※ 통상 분기말에는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폭으로 하락하고 익월 다시 상승하는 경향

- 금감원은 은행권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수 있도록 은행별·부문별 건전성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
  - 국내은행이 부실채권 상·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